

제목: 정해진 승리

심채린

대지: 1.지휘자 하나님 2.기드온과 300용사

본문: 사사기 7장 1-8절

한 문장: 삶의 치열한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하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이전 40년간의 평온했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에 손에 고통 받게 하시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자신도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니 그는 용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를 따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4개 지파도 함께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수가 무려 3만 2천명이나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13만 대군에 비해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싸워볼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인원을 줄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모인 수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나를 거슬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는데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지시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남은 자가 만명이 되었습니다.

적은 수에 비하면 13분의 1밖에 안되는 수였지만 두려워서 떨지 않는 1만명이 있다면 그래도 전쟁은 해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직도 많다’ 였습니다. 한 번 더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하룻 샘의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자세로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신 300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돌려 보내시고 오직 이 300명으로 미디안에서 구원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300명으로 13만 대군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대로 나누어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실 뿐 어떤 창이나 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부수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나팔을 불자 그 밤 진영에서 방심한 채 잠이 들었던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닥치는 대로 칼로 죽여 아군까지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 기드온과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제목: 삼손의 최후

심채린

대지: 1. 몰락의 끝 2.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본문: 사사기 16장 33-31절

한 문장: 삼손과 같은 자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삼손은 거짓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접한 삼손의 모습은 오직 성욕에 불 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아내와의 결혼을 실패 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살인하게 된 삼손의 인생은 한마디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되었버렸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세 여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마지막으로 들릴라 라는 여인은 가장 팜므 파탈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력으로는 결코 죽이기 쉽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가 돈을 주며 삼손의 약점을 찾아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약속 받은 들릴라는 곧장 삼손의 약점을 찾기 위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이런 저런 계락을 펼쳐나갔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평생 머리를 자른 적이 없으며 만일 머리를 자르며 힘을 못 쓴다고 고백했습니다.

약점이 들통나버린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삼손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많은 종을 다시 성결케 하시며 그의 잘린 머리 털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인들은 삼손의 머리를 깎고 두 눈을 뽑은 다음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에게 삼손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그리고 삼손에게 재물을 부리게 시켰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삼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리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삼손의 개인적 복수만이 아니라 그 뒤에 여호와와 다곤 신 가운데 누가 참신인가의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함께 기도한 후 잡고 있던 두 기둥을 끌어 안았고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고 소리를 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습니다. 이제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비참한 생명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에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3천명의 적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흠도 많고, 죄도 많았던 삼손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허망해 보이는 삼손의 끝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의 끝에는 기도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부재일까?

심채린

대지: 1. 자기중심적 2.하나님중심적

본문: 사사기 21장 15-25절

한 문장: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의 연합공동체의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피바람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레위인의 첩의 문제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 600명의 용사만 남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족속의 씨가 말려지니 다시 지파를 살리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후 400명의 처녀들을 빼앗아 채워주고 나머지 부족한 200명은 실로의 여호와의 축제 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는 여인들을 먼저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들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 여기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베냐민 수가 없다고 여인들을 무작위로 채워가는 몰상식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분명히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연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의 의도는 바로 자기중심적에서 시작되는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계시면 우리의 시대도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재중이신적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목: 고뇌 속 결단과 행동

심채린

대지: 1. 위기 속에서 2. 합심의 기도

본문: 에스더 4장 13-17절

한 문장: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페르시아는 고레스, 다리오를 거쳐 아주 큰 대제국으로 팽창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 300에서 그리스와 전쟁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부상하던 헬라 문명에 대항하고자 페르시아의 위엄을 잔치를 열어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 왕궁 여인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푸는데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나오라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하자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생기자 바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곧장 새로운 왕비를 모든 국민 중에서 찾도록 하였는데 **유대인 모르드개**가 자기 조카 에스더를 왕비 간택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어로 왕에 사랑스럽게 여겨져 에스더가 유대인 출신임을 숨긴 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완벽한 에스더의 인생의 전기 같아 보였지만 하만의 등장으로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출신인 아각 사람 하만을 아하수어로 왕이 최고 대신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이모르드개가 하만이 지나가도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허락까지 받고는 유대인들을 아예 진멸할 작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개는 각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과 함께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 출신을 숨겨왔던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너도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고 급히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반응은 왕에게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전통에 따르면 왕자들을 제외하고는 왕의 허락 없이 왕실 안내인의 인도 없이 그 누구도 왕의 면전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지금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 앞에 그 아말렉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잔인하리 만치 단호하게 왕후의 자리를 걸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나설 것을 이야기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릎 쓰고 깊은 고뇌를 마친 에스더는 이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 그녀가 모르드개에게 부탁한 것은 자신을 위해 온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백성을 위한 구원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혼자 힘으로 이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을 이미 5년 전 그녀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시면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가장 밝게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의 빛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돕는 기도의 소리로부터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